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구미에서 태어나서 대전에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손에 자라서 유치원을 다녔고, 전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서 지금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2남 중 둘째이고요 초등학생 때는 노는 것과 과학을 좋아했었습니다 과학을 공부하면서 신기한 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공룡도 신기했고 전투기나 그런 배우는 모든 것이 신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들 보다는 과학 과목이 제일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 관련된 어떠한 일을 하고싶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때부터 로봇에 관련된 일을 하고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만드는 거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로봇을 만드는 것 보다 로봇의 뇌 역할인 인공지능을 배우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로봇을 움직이거나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하게 만드는 건 결국 뇌인 인공지능이 시킨다는 것을 깨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생 때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부터 공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공부하였었던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지능이었고 로봇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드는 것 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본뜬 모양이거나, 그런 식의 지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이론들은 중학생인 저에게는 다 이해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기초정도의 부분만 조금씩 공부하였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새로운 것을 공부한다는 게 재밌어 보였고 실제로 처음 봐서 나름 재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올라오고 로봇을 만드는 것도 하고싶었고 인공지능을 배우는 것도 하고싶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하기에는 두개가 다 어려워 보였고 둘 중에 하나만 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을 하였고, 인공지능은 학습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우리 인간도 학습을 하며 살아가는데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하여서 속도는 더욱 빠르다고 느꼈지만 여전히 인간들이 하였던 여러 학습된 것을 컴퓨터에 적용은 아직 못 시킨다고 생각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계산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아직 사람이 생각하거나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그런 판단 같은 건 사람이 더욱 잘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건 아직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 때 까지만 해도 코드를 짜는 것은 하지 못했고 인공지능의 이론과 살짝 의 기초만 하였었던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 공부 정도만 하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파이썬 이나 이런 코드 언어가 여러 개 있었다는 걸 알았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재미가 없었습니다 막상 결과는 처음에는 인공지능 보단 코드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고, 결과도 제가 생각하는 로봇 가지고 하는 그런 것 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드 언어를 잘 써야 그런 것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해보았지만 처음보고 어려웠고 익숙하지 않아서 혼자서 하기에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혼자 해보다가 안되면 왜 안되지 라는 생각을 자주 하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혼자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혼자 무언가를 하고 과제를 했을 땐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름 재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하여서 잘 풀진 못해서 자주 어려움과 짜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짜는지, 어떤 식으로 해야 더 잘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일단 파이썬이라는 언어에 대해 단어들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였고, 단어들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파이썬 공부를 하였고, 2학년때부터 알고리즘이나, 머신러닝 딥러닝 같은 것들을 공부하였는데 머신러닝은 기계 학습이라는 것이었고,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나름 쉬웠었던 것 같은데 머신러닝이랑 딥러닝은 처음 보는거라서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어떤 식으로 할지 생각을 하여 더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머신 러닝은 기계를 학습하는 것으로 그 안에 딥러닝도 있고 여러가지 있었다. 머신 러닝은 알고리즘이 대부분이었다. 경사하강법과 서포트 벡터 머신, k-means, 네이브 베이지안 알고리즘 등등이 있었다 딥러닝은 인공신경망과 체인룰 등 많은 것들을 공부하였다. 그리고 겨울에 RC카 자율주행 대회를 하였는데 조를 짜서 하였다 거기서 어떻게 하면 학습을 더 잘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 나가는지 생각 하였고 2위를 했다. 그리고 3학년이 되었고 로봇프로그래밍 비지도 학습 데이터 베이스 유전 알고리즘을 배웠다 로봇 프로그래밍은 자율주행을 하는 RC카로 학습 시켜 공부를 하였고, 비지도 학습은 지도 학습과 다르게 우리가 어떠한 라벨 같은 걸 주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하는 것 이었다. 데이터 베이스는 SQLITE로 하였고 유전 알고리즘은 말그대로 인간의 유전 모양을 따라 한 것이었다. 인간의 유전 대신 비트로 하여, 조금씩 변형을 해서 더 나은 쪽으로 가게 하는 거였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울기가 0이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데 로컬 미니멈에 빠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미니멈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고 몇 퍼센트 정도 다른 곳에 넣는 것이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강화학습, 리빙랩, 웹 프로그래밍, 자연어처리, 첨단신경망을 공부하였다. 강화학습은 리워드를 주며 더 좋은 방향으로 학습하게 하는 것 이었고, 리빙랩은 기업과 같이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것을 만들었다. 웹 프로그래밍은 blog 만들기과 챗봇 만들기, 챗GPT API로 해서 만들기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어 처리는 트랜스포머, seq2seq 어텐션에 대해 공부하였고, 첨단 신경망은 마찬가지로 트랜스포머 어텐션 내시균형 르넷 알렉스넷 레즈넷 간 오토인코더 옴로 RCNN을 배웠습니다.